

“**또!!!**”

- ▶ A. 구역공과 ◀

- ▶ B. 공동체 성경읽기 ◀

QR	
----	---

화요일(렘 32~33장)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주어진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숙부의 밭을 매입하게 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가 곧 멸망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토지를 자유롭게 매매하는 그때가 이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반복적으로 예언합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공평과 정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한 의로운 왕이 나심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다윗 왕권과 제사장직이 영원히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수요일(렘 34~36장)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과 동맹국 애굽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바벨론에 저항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놓이자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 노예들을 해방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만, 상황이 바뀌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유다 백성들을 이민족을 통해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목요일(렘 37~39장)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으로 옹립됩니다. 바벨론의 주권에 복종하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 항거했다가 바벨론 군대의 침공을 받아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기도를 요청하지만, 예레미야가 거절하고 오히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으로 가는 도중 바벨론의 첩자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투옥됩니다.



금요일(렘 40~42장) 예루살렘 함락 당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 석방되었던 예레미야가 전쟁 중에 다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라마에서 재석방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 총독에 임명된 그다랴의 통치를 소개합니다. 유다 총독에 임명된 그다랴가 인근 나라로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사람들을 규합하여 대외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펼칩니다.



토요일(렘 43~45장) 애굽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에 동화되면서 유다의 멸망이 주는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책망과 심판 경고에 강력히 반발하여 우상숭배를 계속하는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과거 유다 왕국이 우상숭배로 멸망한 것같이 애굽에 거주한 유다인들 역시 그들의 우상숭배로 멸망할 것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주일(렘 46~48장) 10개의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첫 번째로 선민 이스라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애굽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전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애굽 본토를 침공하여 애굽을 멸망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열방의 멸망과 달리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이 내포되어있음을 말씀합니다.



* 합심기도 :

1. 말씀을 인격적으로 깨닫고 순종하게 하소서
2. 악순환을 끊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성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보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272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윤석 전도사)